

중고생들의 독서교육의 방향설정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문제는, 중고생들의 독서생활 발달과정에서 볼 때 그들이 이미 국민학교 시절에 다소 자유스러운 독서활동으로 어느 정도 독서흥미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가 중학교에 진학하고 상급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독서활동이 학교공부로 인하여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라는 강한 장벽에 부딪쳐서 2학년만 되면 대부분의 학생이 독서활동을 중지하게 된다.

이런 현상을 독서교육의 기본원리라는 면에서 살펴보면, 중학교 시절은 독서활동에 있어서 생리적으로 성숙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독서능력에 있어서도 발전할 수 있는 최선의 단계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이 단계에서 중학생들의 독서활동이 저하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또 고교에서는 중학교의 독서능력을 기반으로 보다 더 성숙된 독서단계로 발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독서활동이 중지상태에 있게 된다. 이런 사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방향을 탐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良書 주의에서 適書 주의로’ 중고생 독서지도의 방향

金京一

성대 사서교육원 교수

### 映像시대의 새 가치관

이와 같은 중고생들의 독서생활 실태에 비추어 독서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하여 지도계획을 세워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 영상문화 속에서 성장한 중고생들에게 왜 독서를 해야 하는가라는 새로운 독서의 가치관을 터득시켜야 하겠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서 영상문화를 가까이 접하며 이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한 중고생들은, 독서에 의존하지 않아도 영상과 기타 매체를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자칫하면 독서라고 하는 행위에 뒤따르기 마련인 노력과 인내를 소홀히 할 염려가 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독서자료의 선택, 독서, 독서후 처리 등 일련의 과정이 요구되는 독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도 나오게 될 것이다.

텔레비전의 보급에 의해서 활자문화의 역할이 감소된 것만은 사실이다. 그 한 예로, 중고생들의 1학기 독서량이 학교의 과제독서까지 포함해서 4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TV의 시청시간은 1일 평균 1시간30분에서 2시간이나 된다고 한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학생들이 활자문화에 접하는 비율보다도 영상문화에 접하여 생활하는 비율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상문화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인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상문화와 활자문화가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어느 한쪽에 편중하지 않고 수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사물에 대한 식견, 느끼는 방법, 사고 등이 발전하면서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형성을 도모하게 된다.

영상문화의 시대가 왔다고 해서 영상의 저속문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저속문화가 사회문제로 제기된지도 오래다. 이런 영상문화에 대한 비판적

신의 기초라고도 할 수 있는 보고 듣는 방법, 느낌, 생각하는 방법과 자세 등은 독서를 통해서만 길러질 수 있다. 독서에는 저항이 뒤따라야 하며 지구력도 있어야 한다. 독서에는 다른 여러가지의 미디어가 가질 수 없는 향기와 맛이 있다. 정보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독서에 대한 진가를 재발견하고 재인식하도록 지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자주적 독서와 사색적 독서

2. 자주적인 독서태도와 습관을 가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중고생의 독서 동기에 대한 조사를 보면 자주적으로 독서하는 학생의 비율이 30%이고, 남이 시켜서 독서한다는 학생은 70%가 된다(전국학생 좋은 책 읽기운동의 조사 분석 통계). 다른 사람의 강제에 의해서 독서를 하든 자발적으로 독서하든간에, 학생들의 독서생활에는 자주성이 있어야 한다.

독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자주성의 기능이 잘 발휘되며, 효과적인 독서가 가능하게 된다. 또 이런 독서자세야말로 바람직한 독서태도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아직 자기가 무



범람하는 영상문화에 대한 비판능력의 기초라고도 할 수 있는 보고 듣는 방법, 느낌, 생각하는 방법 등은 독서를 통해서만 길러질 수 있다. 참다운 독서의 가치발견은 주체적인 독서체험에서만 가능하다.

엇을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목적을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책이 있기 때문에 읽는다’는 경향이 없지 않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良書주의로부터 適書주의의 원칙에 준해서 도서의 선택지도는 물론, 선택을 위한 독서자료 안내도 해주어야 한다. 참다운 독서의 가치발견은 주체적인 독서체험에서만 가능하다.

3. 사색적인 독서를 하도록 지도한다.

독서가 성장하는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똑같은 독서라도 독서 목적과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이다. 목적이 뚜렷하지 못한 독서는 자기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목적이 확실한 독서는,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지식과 감명이 학생들의 성장하는 생활 속에 투영되어 이를 생활화시킴으로써 독서의 의의와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독서에는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사색이 필요하다. 독서를 통해서 자기의 생활을 반성하고 독서에서 얻은 지식과 감명을 사고와 사색의 과정을 거쳐 이를 정선하고 음미하여 자기생활 속에 정착시킴으로써 바람직한 인간성 형성에 도움을 얻게 된다. 그러나 독서에서 얻은 지식과 감동에 대한 사고·사색의 능력, 습관이라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시절부터 독서생활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독서지도를 할 때도 이런 면에 좀 더 주력해야만 하겠다.

사색적인 독서태도란 학생들이 독서내용을 자기의 생활경험과 비교하면서 동일한 점이 없는가, 만일 있다면 어떤 점인가, 그리고 어떤 면이 다른가 등을 반성하거나, 또는 작품중의 인물의 행동에 대한 선악을 비판하고 그의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하면서 독서하는 태도를 뜻한다. 독서는 학생들의 심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教師 자신이 독서정보에 밝아야

필자가 10여년간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해 온 독서교육 방법은 집단지도 방법이었다. 학년별로 각각 학습수만큼의 필독도서를 선정해 놓고, 이를 3주간 단위로 전교생에게 유독시키면서 독후감 쓰기와 독서발표회를 병행 실시하는 이 방법은 이제 전국에 보급되어 일반화되고 있는 듯하다.

오늘날과 같이 교사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학생수가 절대상한선을 넘어 도저히 개별지도가 어렵고, 교육방법 또한 주입식 일변도로 흘러 학생 개개인에 대한 창의력 개발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는 이 제도 이상의 효율적인 독서교육 방안도 없는 듯하다. 특히 이 제도는 오늘날처럼 학생이 학과공부 이외의 삶이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전혀 없고, 자기의 주관이 담긴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길이 막혀버린 학습체제하에서는, 비록 집단적으로나마 무엇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제도에 대한 이해는 어느

## ‘필독도서’ 선정에 유연성을 나의 체험적 독서교육 방법론

曹大鉉

용산공고 교사·아동문학가

정도 일반화된 터이므로, 여기서는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지도교사가 유념해야 할 점을 몇 가지만 강조해 보려고 한다.

첫째는 필독도서 선정에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제도를 처음 개발해 내던 10여년 전만 해도 어린이나 중학교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도서는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필독도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그간 1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아동 및 청소년도서도 매우 다양하게 개발되어 나왔다. 아동도서의 경우, 이제는 연령수준별 편집을 시도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청소년도서도 문학적 위주를 탈피하여 역사·과학·인문사회 분야로 그 종류가 다양해졌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아동과 청소년의 의식경향도 변화하여, 이제는 앞의 세대가 고전명작이라고 떠받들던 책도 이들에게는 별 감동을 못주는 化石化도서가 돼버린 것들도 많다. 그만큼 도서선정 작업이 어려워진 것이다.

흔히 일선학교에서 필독도서를 선정할 때 사회명사들이 추천하는 도서를 별 저항없이 받아들이는 예가 많지만, 이 방법도 믿을 만한 것은 못된다. 전시대의 고전이 오늘의 아동이나 청소년의 감각과 괴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오늘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감각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일선교사가 직접 고르는 방법인데, 그러자면 교사 자신이 최근에 새로 개발되어 나오는 도서에 대해서 해박한 출판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때 유념해야 할 것은 최근의 아동 및 청소년 도서가 상업주의에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동물의 명랑·추리소설의 범람이 그것이고, 청소년물의 경우 국적불명의 해외 연애물이 그것이다.

이런 도서들은 수용자인 아동이나 청소년에게는 환영을 받을지 모르나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그 어느 경우에도 의도가 가미된 독서지도에는 도덕적 지향적인 내용이 최우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학생 의식경향에도 부합되고 교육적 의도에도 부합되는 도서를 그때그때 형편에 맞도록 폭넓게 선정할 때 독서교육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독후감 쓰기와 평가기준

둘째는 독서활동 전반에 걸쳐 지도교사의 역할이 좀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학교 이하의 어린이는 독서요령을 잘 몰라서, 그리고 중고교 학생들은 알면서도 게으름과 흥미부족 때문에 학교의 지도를 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요즘 우리나라 일선학교의 독서교육 실태다. 그 결과 독후감을 쓰라고 하면 남의 것을 베껴 내거나 책 줄거리를 요약해 내기가 일쑤고, 독후감 발표를 시키면 자기 의견이 아닌 책 내용의 일부를 베껴다 읽는 것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런 진행 방법은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기피증만 불러일으킬 뿐, 독서의 효과를 올리는 데는 전혀 무익한 요식행위에 그치고 말 뿐이다.



흔히 필독독서를 선정할 때 사회명사들이 추천하는 책을 별 저항없이 받아들이는 예가 많지만, 믿을 만한 것은 못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청소년의 감각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일선교사가 직접 고르는 일이다.

그러므로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독후감을 쓰고 독서감상을 발표할 때 항상 동기를 유발해 주고, 학생이 자기가 하는 독서활동에 대하여 의욕과 보람을 느끼도록 부추겨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와 함께, 교사 자신이 독후감 쓰거나 독후감 발표에 있어 확고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지도해야 한다.

독후감 쓰기의 경우, 이제까지는 책 내용의 확실한 이해와 깔끔한 문장표현력에 주안점을 두고 지도해 온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는 그보다 창의적인 사고력 유발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문장표현은 좀 서투르더라도, 한가지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얼마나 창의적인 자기류의 생각을 도출해냈느냐 하는 것이 독후감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독후감 발표 역시 노트에 적어온 것을 유창하게 읽거나 원 것을 앵무새처럼 지껄이게 할 것이 아니라, 머리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얼마나 조리있는 언어로 설득력있게 표현해내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의 기준을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사고와 표현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독서교육의 기본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학습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누구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토록 중요한 독서가 대학입시제도라는 굴레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오늘날의 교육, 특히 고등학교 교육이 입시위주에 치중되어 사고력이나 표현력 등 폭넓은 인격의 형성보다는 암기력을 중요시하는 현실이 더더욱 독서교육을 등한시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독서교육부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 학교는 '독서지도위원회'를 조직하여 효율적인 독서지도 실천에 힘쓰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 학교의 독서지도 사례를 소개하면서 모든 학교의 과제인 독서지도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졸업 때까지 42권 읽혀

우리 학교에서는 학년초 교감을 위원장으로, 각 교과주임과 국어과 담당교사 및 사무분장 주임을 위원으로 하는 독서지도 위원회가 구성되고, 모든 사무적 업무추진은 연구부 독서지도계가 담당한다. 학년초 독서지도위원회에서는 학년별 필독도

과학적·체계적인 독서지도를 우리 학교의 지도 사례

신상철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 교사

서를 선정한다. 전교생은 독서록을 준비하여 필독독서를 중심으로 매월 한권 이상의 독후감을 쓰고, 이 독서록은 매월 한번씩 학급담임과 국어과 교사가 지도·검열하여 학기말 국어과 성적에 20%를 반영한다.

독서록에는 1학년부터 연번호를 기록하여 졸업 때까지 42권 이상의 독후감이 기록된다. 이는 학생들에게 책을 읽게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독해력이 어느 정도 신장되었는가를 측정하는데 객관성을 더해준다.

1학년 입학과 동시에 학급별로 필독독서를 한 권씩만 준비하게 되면, 한 학년이 14개 반이니까 졸업 때까지는 42권의 책을 읽게 되는데, 연초에 필독도서목록이 발표되면 전 학급이 같은 책을 한달 동안 읽고 매월말 금요일 일곱째시간에 독후감 발표 및 토론회를 갖는다.

각 학급에서는 도서부장이 주축이 되어 자율적으로 독서활동을 추진하고 매월 순서에 따라 한 조씩 발표를 하다.

한 조는 실습조처럼 7,8명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매월초 그달의 발표조를 자율적으로 분담해서 발표할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발표내용은 저자, 작품의 시대적·사회적 배경, 소재, 주제, 줄거리, 작품의 감상 등이다.

발표자는 발표가 끝나는데로 일반 학생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이 시간은 대개 발표자와 일반 학생들간에 열띤 공방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의견 차이는 담임교사의 중재로 점차 좁혀진다.

이러한 독서지도과정은 학생들의 독해력 및 문장력만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판력과 타인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이해심 등도 길러줄 수 있어, 생활지도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학생들의 독서록은 독후감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시나 수필, 일기, 감명깊은 글귀, 그림 등도 첨가시켜 개인문집을 대신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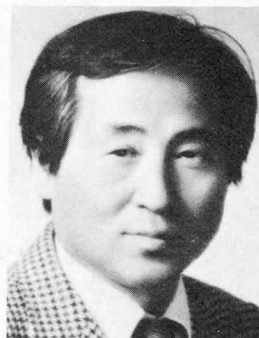
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독서지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연 2회(7월말, 2월초)에 우수 독서록을 선정하여 시상을 한다.

또 개인독서록 외에 학급담임을 중심으로 한 독서조별 독서록이 있다. 이것은 조별로 매일 한사람씩 돌려가면서 읽은 책에 대한 내용을 적어 학과 시작 전에 담임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독서조는 한 학급에 8개조가 조직되어 있으므로, 담임교사는 대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글을 읽고, 문제성이 보이면 개별적으로 상담도 할 수 있어, 이 역시 생활지도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뇌성향 따라 권장도서 선정

이러한 독서지도 외에 또 한가지 우리 학교에서 주력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두뇌활동 경향을 파악한 다음 이 경향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권장도서를 선정하는 일이다. 이는 독서지도에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즉 우리 학교는, 현행 입시제도가 左腦를 중시한 언어적·기호적·논리적·분석적 능력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右腦를 계



학생들의 두뇌 활동 경향에 따라 권장도서도 달리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右腦형의 학생에게는 논리적이고 설명적인 도서를 권하고, 左腦형의 학생에게는 문학적이고 전기적인 도서나 회화적 이미지로 부각된 도서를 권장한다.

발시킬 수 있는 회화적·음악적·공간적·총합적 내용의 도서를 권장하고 있다.

학생들의 뇌성향에 따라 학급문고를 준비하여, 우뇌형의 학생에게는 논리적이고 설명적인 도서를 권하고, 좌뇌형의 학생에게는 문학적이고 전기적인 도서나 회화적 이미지가 부각된 도서를 권장한다.

독서지도방법도 성향에 따라 다르다. 좌뇌형 학생들에게는 마음에 영상을 떠올리거나 공상을 해가면서 독서하게 하고, 音讀을 하게 하며, 낙서·도형·활자체로 메모를 하도록 한다. 특히 음악을 들어가면서 독서를 하게 하고 주인공의 인상이나 표정, 감정 등을 기록해보도록 유도한다. 반면 우뇌형 학생에게는 독서할 때 줄거리를 반드시 메모하도록 하고, 자료를 체계화시켜 감상문을 길게 쓰도록 지도한다.

독서는 습관화·생활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음식의 편식이 몸에 해로운 것처럼 한 쪽의 책만을 골라 읽지 않도록 전뇌를 활용하는 폭넓은 독서를 권장하는 것은 원만한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본다.